

사회복지시설 탐방 ③ 송우리문화센터 대표 정승진 목사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돕는 공동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06-1번지에 위치한 송우리문화센터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CIS) 3국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원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1996년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파견돼 있던 이석봉 목사가 귀국하면서 설립한 송우리 문화센터는 처음 원일아파트 인근에서 시작,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다.

송우리문화센터는 정승진 목사를 대표 목사로 방글라데시(정승진 목사), 러시아(은성식 목사), 베트남(안정호 목사) 3개의 공동체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공동체마다 나라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담당 목사가 있다.

송우리문화센터는 카페와 스토어, 교회로 구성돼 있다. 카페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찾아 직접 요리를 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토어에서는 이·미용 등 외국인들의 생활 및 취미와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배당에서는 주일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전 11시 30분에는 베트남이 오후 2시에는 러시아가 저녁 6시에는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예배를 보고 있다.

송우리문화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알선과 임금 체불, 불법체류와 연수

생들의 처우문제 해결, 한국문화 적응, 산재도우미, 생활문제처리 등 다양하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중 행사로는 5월에서 7월 사이 야유예배 및 친교, 김경희 집사 외 6~7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외국인 가정 반찬공급, 합숙소 운영을 통한 선교 및 친교 활동, 설·추석 명절 위로잔치 겸 수련회, 매월 1회 창동 열광교회 의료진료단의 무료진료 및 이·미용 활동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정승진 목사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경우 문화적인 이질감, 근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근무하는 만큼 자원해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문화센터의 성격상 선교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선도의 입장에서 모든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러시아,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인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시간과 급여의 적용 등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와 일맥상 통하고 있다.

정 목사는 "문화센터를 찾는 베트남, 러시아, 방글라데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일하는 문화 때문에 겪는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며 "대표적인 예로 시간의 잔업의 경우 한국인들은 남아서 처리하는 것을 당연시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



송우리문화센터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러시아(CIS) 3국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원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왼편은 좌부터 은성식·정승진·안정호 목사)

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겪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열고 있다.

베트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안정호 목사가, 러시아는 매주 일요일 낮 11시부터 12시까지 러시아어 자 원봉사자인 이재욱 씨의 지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강좌를 열고 있다.

정 목사는 "앞으로 송우리문화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천

뿐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총체적 총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정무부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립된다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우리문화센터는 현재 시유지로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건물과 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 목사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200명의 대지와 50여 명의 공

간이 시유지로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소흘읍 지역의 발전에 따라 시유지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포천시와 시민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문의 : 031-543-9201
후원 : 방글라데시 066-24-0207-679(국민은행, 정승진)
베트남 425301-01-137341(국민은행, 이인자)
러시아 021-02-217080(농협, 은성식)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타우라스의 두루미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다고 한다. 이 산은 독수리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의 독수리는 두루미를 먹이로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두루미들이 타우라스 산을 넘을 때면 독수리들이 여지없이 공격하는데 특이한 것은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두루미는 울음소리를 내는 두루미라고 한다.

반면 타우라스 산을 수 없이 넘어도 노련한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산을 넘기 전에 입에 돌을 물고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돌을 문 두루미는 돌 때문에 무사히 산을 넘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평소에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 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나 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이야

기를 하고 스스로의 말에 도취되어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어디 한 두 번이랴..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아는 것,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행을 하기 전에 반듯이 뒷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을 한다. 그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아무리 어떤 행을 하고 싶어도 타우라스를 넘는 노련한 두루미와 같이 돌이라도 물고 다니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단다"라는 명구가 있듯 고통은 힘들지만 그것은 죽을 목숨도 살리지 않는가.....

필자연락처 031-542-0032



나의 작은 사랑이야기 ⑨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서울유유 낙농 전문지에서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를 읽어보며, 우리 목장에 대해 생각해 본다.

농기계 참고가 없다면 트랙터, 트랙터 작업기, 경운기, 포크레인, 스키로더 등 시골 살림살이가 정성 없이 여기 저기 늘어져 있다.

목장 주변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소비 자들로부터 비위생적인 목장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할 수가 없다. 비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게 되면 검사기준에 있어 체세포, 세균, 약물검출 등 아주 엄격하게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 우유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납유를 3일 정지하고 체세포가 5등급(75만 이상) 3회면 검사 기준에 의해 우유값을 반값으로 받는다. 따라서 깨끗한 우유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의왕 T.M.R. 사료회사에서 일본 북해도에 위치한 낙농을 견학한 적이 있다. 착유는 주민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로 하고, 목장 주변에 우분을 발효하여 퇴비를 만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신원 공현리

며, 유제품을 직접 가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다. 목장 주변이 잘 정리 정돈되고 착유실이 깔끔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착유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깨끗한 목장,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목장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착유하는 목장을 청결하게 해서 썩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목장 운동장에 있는 우분을 깨끗이 치우고 우선 농기계 참고를 지어 농기계를 정리 정돈하고 목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영천목장' 이름을 돌에 못이겨 적어 간판을 세우고 길 주변에 사철나무와 꽃 나무를 심어 목장 주변 환경이 정리 정돈되어 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을 신선한 우유를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영천 목장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를 공급하여 안심하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초아의 봉사 실천합니다”



지난달 28일 내촌면 테마공원에서 국제로타리 3690지구 (가칭)동포천로타리클럽 창립식이 개최된 가운데 회원 및 내빈이 창립을 축하했다.

가칭 동포천로타리클럽 창립총회

(가칭)동포천로타리클럽(회장 이흥규)은 지난달 28일 내촌면 테마공원에서 국제로타리 3690지구 (가칭, 이하생략)동포천로타리클럽 창립식을 개최했다.

봉사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수준 향상과 사회봉사와 로타리 강령인 초아의 봉사의 이념을 실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해 마련된 이날 창립식은 국제로타리 3690지구 총재 나나 최은숙, 총재특별대표 송인 박지하, 스폰서클럽 의정부 RC회장 현상 신정호, 스폰서클럽 박운국 포천시장, 이문용 재경포천 시민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제2회 경로잔치와 함께 치러졌다.

동포천로타리클럽의 창단은 이흥규 회장이 지역 유지들과 지난 5월 개최한 제1회 경로잔치 때 제기되어 몇차례 준비모임 끝에 지난 9월 8일 내촌면 소재 내초너 찻삼가에서 발기 총회를 개최해 (주)내촌주조 이흥규 회장을 추대하고 임원을 선임했다.

동포천로타리클럽의 임원은 이흥

규 회장, 김진우·김영도 부회장, 임대욱 재무, 김현수 총무와 강성만·엄광열·박병설·이일열·지상락으로 구성된 이사회, 지역봉사 남기석, 직업봉사 신관수, 사회봉사 박도식, 국제봉사 고영화 등으로 선임됐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송우우체국 집배업무 시작 소흘·가산 지역 우편물 취급

포천시 소흘읍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늘어나는 우편물을 신속하게 배달하고 향후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존 포천우체국에서 처리했던 집배업무를 지난 10월 31일부터 포천송우우체국으로 이관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집배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포천송우우체국 집배 관할 지역은 소흘읍, 가산면 전지역으로, 포천송우우체국에서는 일방우편물 및 등기·소포우편물 배달, 등기·소포우편물 보관 및 교부, 우체국택배 및 배달 등의 업무가 이관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송우우체국(031-542-0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효도공부방 한글 익히기 한창

오색의 단풍이 물결 칠하듯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가을이 무르익은 모습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내촌의 노인정에 효도 공부방을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억 나면 한자 한자 읽혀 가는 모습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분위기로 지금은 어설플던 손가락도 손목이 아프다하며 말씀하시던 모습들이 한결 성숙해진 느낌입니다.

아직은 시골이나 자료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설플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내촌을 사랑하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공부

방은 토요일이면 화가에애한 분위기로 기다려 진다고 말씀 하십니다.

한글 배우기, 노래 부르기(음악회 발표예정) 등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고 12월엔 수료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과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은 가지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어르신들의 마음은 밝은 햇살과도 같을 것 입니다.

우리 마음들이 예쁜 자원봉사자(푸른솔)의 주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순희 주부명예기자



소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소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소흘읍 송우레딩홀에서 노인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흘·가산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한 가운데 연예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소흘·가산 경로위안잔치

소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정삼용)는 지난달 31일 소흘읍 송우레딩홀에서 노인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흘·가산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소흘읍과 가산면 지역의 노인들을 초청해 점심식사 대접과 중견 가수 등 연예인 공연을 통한 위문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잔치는 소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삼용 생활안전협의회장은

"이번 경로위안잔치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행사"라며 "늦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 수 있도록 소흘·가산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안전협의회는 이날 행사가 초청한 노인들을 위해 이불을 500채트를 마련했다.

지난해 6월 창립된 소흘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정삼용 회장과 백봉기·이종현 부회장, 조정성 총무 등 임원진과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소흘읍 인구 4만 돌파

소흘읍(읍장 이영재)은 지난 1일 오후 4시경 정임신고를 마친 안왕열(소흘읍 송우리 대왕아파트 입주) 씨에게 은수저세트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소흘읍 인구는 지난해 11월 1일 3만1천936명이었으며, 9월말 기준 3만19천444명이었다.

한편 소흘읍 관계자는 "송우리 주공아파트 등 신규 입주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 증



지난달 이영재 소흘읍장과 소흘읍 직원들이 4만 번째 입주자인 안왕열 씨에게 은수저세트와 꽃다발을 증정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가에 따라 송우리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축협 영복지점, 이웃사랑 화제

포천시 축산협동조합 영복지점(지점장 이원준)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달라며 지난 달 24일 직원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20kg들이 쌀 33포를 기증했다. 이 쌀은 영복지점사무소를 통해 30여 불우이웃 가구에 전달돼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랑의 김치 나눔에 부쳐

조건 없는 사랑 한마음으로 동치된 감사와 사랑이 교차될 때 슬픔이 아닌 기쁨의 고마움에서 외로움과 고통이 병행하는 84세의 포천동 박창호 할아버님의 흐느낌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열연과 정열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지하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박혜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나지 않는다. 즐겁게 일을 하면 세상이 천국이 된다.

하나같이 주부명예기자단의 마음은 천사로 변해 있었고 가장 작은 힘이 모여서 가장 큰 사랑이 되어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삶을 체험하면서 노력의 댓가가 주어질 수 있던 수 많은 작은 봉사의 길을 한가닥씩 택해간다는 이념아래 고난, 역경은 소리 없는 총으로 쏘아 버리고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동치된 건강이 주어지는 한 의도하고 있는 작은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리라 다짐해본다.

내가 살아가는 길에 분수를 지켜가며 부족한 것은 보충도 하고 정말 힘있고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과 연관성 있게 매사에 충실하고 활력 있는 생명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독단적 관념은 버리고 열성적인 마음에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착실한 우리 주부명예기자단의 진실하고 질서 있고 화합하는 파이팅을 외쳐본다.

포천신문사 파이팅!